

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(제 114-1호)

여론속의 여輿론論

기획: 성인 코로나19 자가치료 선택 의향 조사

2021. 01. 22.

담당자 이동한 차장

전화 | 02-3014-1060
e-mail | dhlee@hrc.co.kr

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

-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.
-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.
-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.
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,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.
- 정기지표-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.
- 정기지표는 국가, 사회,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.
-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.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,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돋고자 합니다.
-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.

운영책임

정한울 전문위원

전화 | 02-3014-1057
e-mail | hw.jeong@hrc.co.kr

조사실무

이동한 차장

전화 | 02-3014-1060
e-mail | dhlee@hrc.co.kr

이소연 사원

전화 | 02-3014-1062
e-mail | lee.sy@hrc.co.kr

일러두기

-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,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%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
-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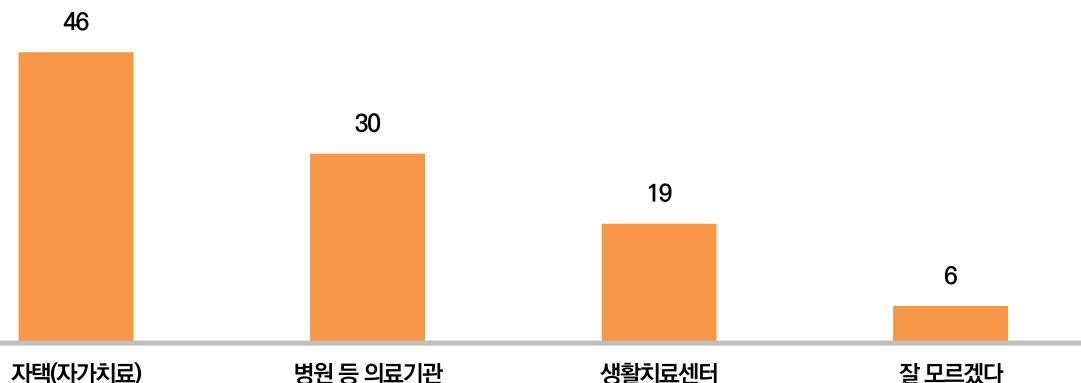
1 성인 자가치료 의향

본인 코로나19 확진시, 의료진 판단을 전제로 자가치료 하겠다 46%

본인이 무증상 또는 경증 상태로 코로나19에 확진되었을 때, 의료진의 판단 하에 집에서 자가치료를 하겠다는 응답은 46%였다. 이는 작년 12월 11일 ~ 14일 진행했던 조사(<https://hrcopinion.co.kr/archives/17093>)에서의 자가치료 의향(28%, 의료진의 판단 하에 자가치료가 가능하다는 전제 미포함)보다는 높으나 과반에는 못 미치는 결과이며, 영유아,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의 자녀 자가치료 의향(80%)의 절반 수준이다.

코로나19 확진시, 의료진 판단 하에 자가치료 하겠다 46%

(단위 : %)



질문: 귀하께서 무증상 또는 경증 상태로 코로나19에 확진되었을 때, 의료진의 판단 하에 자가치료가 가능하다면 어디에서 치료를 받고 싶으십니까?

표본수: 1,000명

조사 기간: 2021. 01.08 ~ 01.11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자가치료 선택 이유, 심리적인 편안함 53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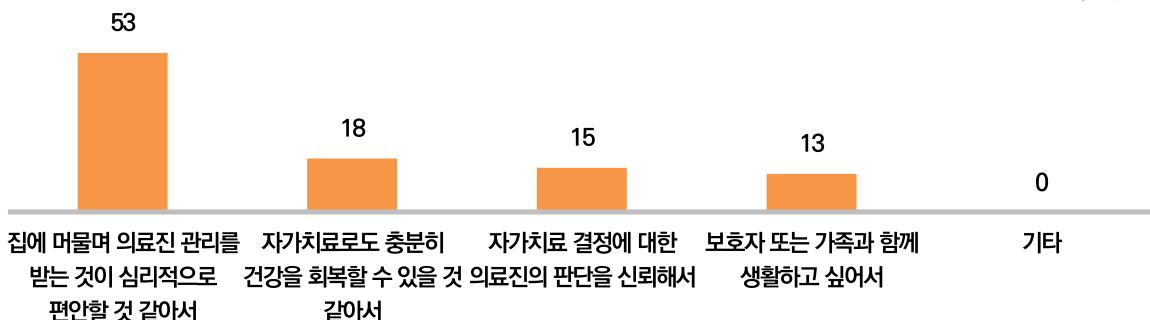
의료기관·생활치료센터 선택 이유, 동거인 감염 염려 53%

주택에서 머무는 자가치료 선호 이유로는 ‘집에 머물며 의료진 관리를 받는 것이 심리적으로 편안할 것 같아서’를 꼽은 응답이 53%로 가장 많았고 ‘자가치료로도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(18%)’, ‘자가치료 결정에 대한 의료진의 판단을 신뢰해서(15%)’, ‘보호자 또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싶어서(13%)’ 등의 순이었다. 모든 연령대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꼽은 응답이 높은 가운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‘자가치료로도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’, 연령대가 높을수록 ‘자가치료 결정에 대한 의료진의 판단을 신뢰해서’라는 응답이 높았다.

반대로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‘자가치료 시 가족 등 동거인 감염 우려’를 꼽은 응답이 53%로 가장 많았고, ‘갑자기 증상이 악화될까봐 불안해서’라는 응답이 37%로 뒤를 이었다. 이는 자가치료 확대를 위해서는 같이 사는 가족·동거인에 대한 감염 예방 조치가 필수적이며, 증상 악화 시 바로 치료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.

자가치료 선택 이유, 심리적인 편안함 때문
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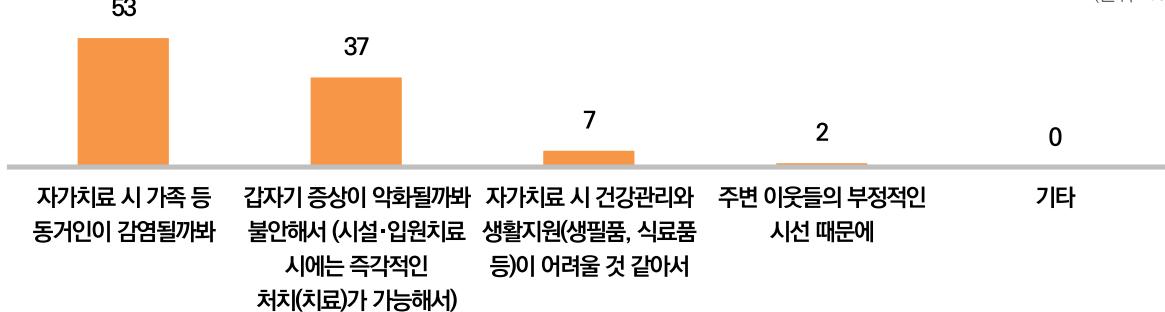
질문: 주택에서 머무는 자가치료를 선호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

표본 수 : 주택(자가치료) 선호하는 응답자 460명

조사 기간: 2021. 01.08 ~ 01.11

의료기관·생활치료센터 선택 이유, 동거인 감염 염려와 갑작스런 증상 악화에 대한 염려 때문

(단위 : %)



질문: 주택에서 머무는 자가치료보다 의료기관(병원) 또는 생활치료센터를 선호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?

표본 수 :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를 선호하는 응답자 485명

조사 기간: 2021. 01.08 ~ 01.11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조사개요

구분	내용
모집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
표집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(20년 12월 기준 약 54만명)
표집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지역별, 성별, 연령별 비례할당추출
표본크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,000명
표본오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, 95%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$\pm 3.1\%$
조사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웹조사(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)
가중치 부여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지역별, 성별, 연령별 가중치 부여(림가중) (2020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)
응답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조사요청 7,682명, 조사참여 1,239명, 조사완료 1,000명 (요청대비 13.0%, 참여대비 80.7%)
조사일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2021년 1월 8일 ~ 1월 11일
조사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(주)한국리서치(대표이사 노익상)

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

여론속의
여輿론論

Hankook | Research

